

“‘자연의 빛’ 반딧불 보러 오세요”

무주반딧불축제 D-100일... 운문산 반딧불이 신비탐사·생태탐험 등 사전 행사 개최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8.31.~9.8.)가 D-100일 카운트에 들어갔다. 무주군은 “무주방문의 해”에 걸맞은 축제를 선보인다는 각오로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 여행”을 예고해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가 D-100일 카운트에 들어갔다. (반딧불이의 향연)

그 시작은 6월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2024 운문산 반딧불이 신비탐사”다. 체험비는 1인당 1만 5천 원(대·소인 구분 없음/36개월 미만 무료)으로 체험비 중 5천 원은 무주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무주반딧불축제 누리집(www.firefly.or.kr)에서 하면 된다.

반딧불이 신비탐사, 별보기와 함께 무주군 주요 생태 관광지(목재문화체험장, 소이나루공원, 태권도원 등)를 여행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1박 2일 생태탐험’은 6월 1일, 5일, 6일, 7일, 8일 5회 진행되며, 무주반딧불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10월까지(8월 말~ 늦반딧불이)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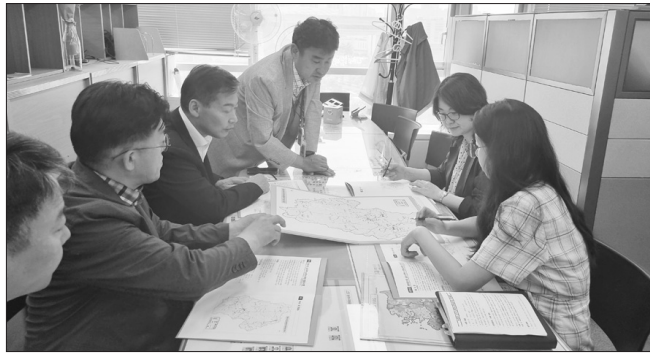
예약은 전용 사이트(www.mujutour.com)를 통해 하면 되고 참가비는 3인 가족 35만 원, 4인 가족 40만 원, 5인

가족 45만 원이다. 탐사 당일 현장에 오면 무주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무주반딧불축제 관계자는 “해마다 반딧불이의 생육환경과 출현 일수에 맞게 신비탐사를 진행하다 보니 기간이나 인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이 있었다”며 “올해는 광범위한 반딧불이 실태조사를 통해 탐사일 수를 대폭 확대한 만큼 방문객 여러분 편의로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무주읍 지남공원 및 남대천변 일대에서 진행되며, 친환경 생태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한 프로그램과 축제 운영 전반에서 “3無 축제(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축제)”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 부처 예산안에 진안군 주요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진심을 다해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간절히 요청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전춘성 진안군수, 환경부·행안부 등 방문 지원 요청

전춘성 진안군수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설득 활동에 나섰다.

23일 진안군에 따르면 전 군수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 부처 예산안에 진안군 주요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진심을 다해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간절히 요청했다.

전춘성 군수는 먼저 환경부를 방문해 진안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진안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364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용담호 및 섬진강 수질개선을 위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총사업비 88억원 중 실시설계비 4억원)한데 이어,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통

해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총사업비 497억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전 군수는 이어 행안부 관계자들을 만나 자연재해 위험성 등을 강조하며 △진안군 양명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총사업비 140억원 중 실시설계비 5억원)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유수영 행정국방 예산심의관과 강준모 국토교통예산과장을 만나 진안군의 녹지 지형 특성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국가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어줄 국가예산은 부처단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찾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돼야”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건의...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의장협의회 건의안 채택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이 태권도 위상강화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건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의장협의회는 대한민국 고유의 무도이자 세계적 스포츠인 태권도가 교육·문화·스포츠를 아우르는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의장협의회 의장들이 태권도 위상강화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건의했다. (반딧불이의 향연)

이해양 의장은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해양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한류 문화의 원조격인 태권도는 현재 전세계 213개국 1억 5천만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무예이자 스포츠가 되

었다”고 말했다. “8회 연속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대한민국 국위선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태권도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양 의장은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해양 의장은 “KOREA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재는 무형유산의 국내·국제적 가치성 제고를 통한 태권도 이해증진, 무형문화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지원 등 수많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북 시·군 의장들은 “국기 태권도 위상강화와 민족자긍심 고취는 물론 세계 인류문화에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태권도의 성지 무주가 유네스코의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청년정책’ 홍보 유인물 제작

장수군이 2024년 장수군 청년정책 홍보 유인물을 제작해 장수군의 청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 장수군에 정주하거나 향후 정착을

고민 중인 청년들에게 유용한 알짜배기 정보를 알지라·창업·농업·주거 등 분야별로 나눠 기술했다. 실효성 있는 홍보를 위해 민원과 및 읍·면사

무소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청년정책에는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최대 100만원), 청년창업 더하기 지원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참고하거나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공영장레지원 서비스 기반 마련

무주군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레지원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영장레지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행정에서 지원하는 장례 서비스로, 무주군은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인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가족관계와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공영장레지원 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무주군 공영장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관련 예산(320만 원)도 확보했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이은주 과장은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인 현상이 돼버린 상황에서 준비가 필요했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영장레지원 서비스 시행과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이외에도 초고령 현실 속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2억 4천 5백만 원을 투입해 추모의집 운영(봉안당, 자연장지) 및 화장장려금 지원(사망 후 화장 1인당 5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분묘 개장 후 화장 1인당 2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사업을 추진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농산물 통합 마케팅조직 평가 ‘A등급’

진안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최종진, 이하 진안조공)이 전북특자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며 도비 5,5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3년 말 기준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실적에 대한 연차 평가로, 지역연합조직(조합공동사업법인) 13개소, 품목광역조직 3개소 등 16개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진안 조공은 전년도 평가에서 B등급에 머물렀으나, 올해에는 출하율 및 조직화 참여 농가 증가를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 A등급을 획득하며 우수조직으로 인정받았다.

군은 이번에 확보한 추가 사업비를 농가 조직화 및 농산물 마케팅, 상품화 비용 등에 투입해 조공의 성장세에 보탬이 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 면 지역 확대 운영

진안군은 자원 순환도 가능하고 고부가가치 자원인 투명 페트병의 배출 활성화를 위해 면 지역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8대를 추가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진안읍 내 3개소와 공공시설 2개소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5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투명 페트병의 회수율이 증가함에 따라, 각 면 행정복지센터에도 무인회수기를 추가로 설치하게 됐다.

무인회수기는 기계 화면에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투입구가 열리며, 라벨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운 투명 페트병을 넣으면 된다. 수거된 투명페트병은 1개당 10포인트씩 적립되며, 누적 포인트가 2,000점 이상일 경우 휴대폰 앱 또는 회수기 운영업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및 회원가입 후 포인트 환급신청을 하면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회수된 페트병은 의류, 부직포와 같은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